

독서수업
지도안
교사용

초등학교 5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박효미 글 | 홍선주 그림 | 웅진주니어 | 107쪽

독서 준비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미리 보기
독서	책을 즐기며 읽기
독서 후	생각 나누기, 독후활동지, 정리하기

차시별 수업 계획 예시

단계	개요	차시	활동 내용	비고
1	독서 준비	1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미리 보기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 알기 ·문학 작품 가운데에서 읽을 책 정하기 ·책 미리 보기: 표지 ·책 미리 보기: 책의 저자와 머리말	학생 1인에 책이 1권씩 모두 있어야 함.
2	독서	2	책을 깊이 있게 읽기(1) 책을 깊이 있게 읽기(2)	3차시 동안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기.
		3		
		4		
3	독서 후	5	생각 나누기_독서 토의하기(1) 생각 나누기_독서 토의하기(2)	학생들에게 독후활동지를 나누어 주기.
		6	독후활동지 ·어휘력 기르기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7	독후활동지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3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4	
		8	정리하기 ·독서 활동 돌아보기 ·더 찾아 읽기 ·독서 습관 기르기	



독서 지도안





📖 우리 학교 도서관 둘러보기

도서관에는 책이 아주 많은데 내가 찾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았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 책 제목을 보고 분야에 맞게 책꽂이에 책 꽂아 보기

책과 책꽂이마다 번호가 붙어 있으므로 도서 검색대에서 책 번호를 찾은 다음 그 번호를 찾아간다.

TIP

책 제목을 보고 어떤 분야의 책인지 짐작하여 책꽂이에 꽂아 봅니다.

📖 책 제목을 보고 분야에 맞게 책꽂이에 책 꽂아 보기

💡 도서관에서 책 찾기 놀이 하기

- ① 모둠 친구끼리 의논해 담당 구역을 정하고, 각자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씩 고른다.
(예. 첫 번째 친구는 100번대, 두 번째 친구는 200번대, 세 번째 친구는 300번대에서 책을 고른다.)
- ② 쪽지에 자신이 고른 책 제목과 청구 기호, 쪽지 주인을 쓰고 책은 제자리에 다시 꽂아 둔다.
- ③ 쪽지를 반으로 잘라 책 제목이 쓰인 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청구 기호와 쪽지 주인이 쓰인 부분은 다른 친구와 바꾼다.
- ④ 친구와 바꾼 쪽지에 쓰인 청구 기호를 보고 책을 찾는다.
- ⑤ 쪽지 주인을 찾아가 자신이 찾은 책이 맞는지 확인한다. 맞으면 교과서 13쪽 표에 책 제목과 청구 기호를 쓴다.
- ⑥ 놀이를 되풀이하면서 책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 한국 십진분류법

[000 종류] : 지식 및 학문 일반, 이론 체계 및 시스템, 컴퓨터과학,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데이터

[100 철학] 150 동양철학, 160 서양철학, 170 논리학, 180 심리학, 190 윤리학 등

[200 종교] 220 불교, 230 기독교, 240 도교, 250 천도교 등

[300 사회 과학] 310 통계자료, 320 경제학, 340 정치학, 370 교육학 등

[400 자연 과학] 410 수학, 420 물리학, 430 화학, 440 천문학, 480 식물학, 490 동물학 등

[500 기술 과학] 510 의학, 550 기계공학, 570 화학공학, 590 생활과학 등

[600 예술] 630 공예, 640 서예, 660 사진예술, 670 음악 등

[700 언어] 710 한국어, 720 중국어, 740 영어, 750 독일어, 760 프랑스어, 780 이탈리아어 등

[800 문학] 810 한국문학, 840 영미문학, 860 프랑스문학, 870 스페인 및 포르투갈 문학 등

[900 역사] 910 아시아, 920 유럽, 930 아프리카, 940 북아메리카, 950 남아메리카 등

TIP

'800'으로 시작하는 책은 문학 분야에 속하고, 특히 '810'으로 시작하는 책은 한국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 주세요.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미리 보기 : 문학 작품 가운데에서 읽을 책 정하기



누구와 읽을지 정하기

학급 전체 읽기	반 친구들과 의논해 읽고 싶은 책을 함께 골라 읽어요.
모둠끼리 읽기	모둠 친구들과 의논해 읽고 싶은 책을 함께 골라 읽어요.
혼자 읽기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혼자 골라 읽어요.

문학 분야의 책 가운데에서 읽을 만한 책 고르기

- (예) 나는 동화책 한 권을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 좋겠어.
 (예) 나는 시를 좋아해. 친구들과 함께 시집을 읽고 싶어.
 (예) 문학 분야에는 동화, 시, 희곡, 수필같이 여러 갈래가 있구나.

문학 분야의 책 가운데에서 읽을 만한 책 고르기

책을 추천할 때에는 책을 추천한 까닭이 자세히 드러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번 학기에 읽을 책 정하기

💡 이번 학기에 읽고 싶은 책 목록 만들기

책 제목	지은이	쪽수	출판사
7월 32일의 아이	박효미	108쪽	웅진주니어
스피노자와 나	실벤느 자우이	138쪽	밝은미래
도서관을 훔친 아이	알프레도 고메스 세르다	152쪽	풀빛미디어

이번 학기에 읽기로 정한 책	7월 32일의 아이
그 책을 정한 까닭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은 31일까지 있는데 '7월 32일의 아이'라는 게 무얼 뜻하는지 궁금해서 책을 읽고 그 의미를 알아보고 싶다. · 웅진책마을 시리즈의 다른 책들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읽었기에 이 책도 기대가 되고 읽어보고 싶다.

※참고, 이번 학기에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서 찾기 예

〈7월 32일의 아이〉⇨ 한국문학 작품이므로 청구 기호 810번대에서 책을 찾는다.

〈스피노자와 나〉⇨ 프랑스문학 작품이므로 청구 기호 860번대에서 책을 찾는다.

〈도서관을 훔친 아이〉⇨ 스페인문학 작품이므로 청구 기호 870번대에서 책을 찾는다.



☞ 자신이 정한 책의 앞뒤 표지를 살펴며 친구들과 질문 주고받기

- ① 자신이 정한 책을 뒤집어 펼쳐 놓는다.
- ②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본다.
- ③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책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본다.
- ④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7월 32일의 아이』의 표지 탐색하기

학생들 각자 갖고 있는 책 표지를 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니다.



💡 책 제목을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학생1 : '7월 32일의 아이'가 무슨 뜻일까?

학생2 : 출생신고를 못 해서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적이 없는 아이의 이야기가 아닐까?

💡 앞뒤 표지 글귀를 보고 질문 주고받기 책의 앞표지 날개에 나와 있는 글썬이 소개를 읽어 봅시다.

(예) 학생1 : 옛이야기에 나오는 그 도깨비감투와 선녀의 날개옷을 말하는 걸까?

학생2 : 현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놀라운 행운이나 기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닐까?

💡 앞뒤 표지 그림을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앞표지 그림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가 준재일까? 작은 꼬마는 누구일까?

(예) 뒤표지 그림의 인물은 날갯짓하는 새들과 함께 그려진 걸로 보아 명주일까?



책의 저자와 머리말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책의 저자와 머리말을 살펴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① 책의 저자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② 책의 머리말을 읽고 내용 예상하기

- 머리말은 작가의 말, 서문이라고도 해요. 작가님이 책을 쓰신 까닭이나 책 전체 내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작가님이 독자에게 바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7월 32일의 아이』의 저자와 머리말(작가의 말) 탐색하기

글을 쓴 **박효미** 선생님은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했고
‘MBC 창작동화대상’에 〈낙락 도둑〉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일기 도서관〉 〈노란 상자〉

〈말풍선 거울〉 〈김고양이 방석〉

〈학교 가는 길을 개척할 거야〉 〈오후 돈 뱀지코?〉

〈왕자 용과 사라진 성〉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블랙아웃〉 〈고맙습니다 별〉 등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작은 초박을 품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이야기 두 편은 꽤 오랫동안 내 노트북에서 머물렀다. 다 쓴
이야기를 별 생각 없이 노트북 구석에 박아 놓고 거의 잊다시피 했다.
지난해 연말처럼 어떤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불을 켜야 나왔다. 다시
일 년에 걸쳐 책을 만들었으니, 별 작은 이야기 책을 쓰는 데부터
마지막 몇 해나 흘러 버린 셈이었다.

그리고 나니, 나로서도 이야기가 낯설었다. 흔쾌히 쓰며 써 줄
처음 만난 것 같았고, 그 애들한테 내 마음이 실렸다. 다시 읽으면서
그 애들과 더불어 웃었다.

문득,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열 살 무렵 떨어진 일들을 잊을
수가 없다.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때 지어 몰려왔다. 특히 나쁜 일은
더욱 무리 지어 몰려오기 마련이다. 달밤 산책이나 모지 무서웠던
그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아프기 시작하고, 자리에 놓고, 병간호를
하고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 모든 걸
가까이에서 보았다.

어쩌면 나는 그때 외로움이라는 초박을 품었는지 모르겠다.
때로 초박들은 시리도록 차가워지고, 때로 따사로운 햇볕을 받아
노곤해졌다. 나는 초박들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지지 않도록
매트리스 상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초박의 조금씩 성장했다.

이 이야기 두 편은 그 초박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크기는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외로움이라는 초박을 말한다. 하루를
보내는 걸쭉, 보통이, 아무튼 밤길에서 초박들은 가장 시리도록
차가워질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때로 감동부가 되고, 때로 발길
잡히는 손편들이 될 거라고 믿는다. 하여 그 초박들을 지니고 있어도
괜찮다고 종종 마주 담배연 되는 일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2017, 겨울 가는 가을에
박효미

책의 앞표지 날개 부분입니다. / 책의 4~5쪽입니다.

※ 책의 앞표지 날개에 나와 있는 글쓴이 소개와 4~7쪽에 나와 있는 머리말을 보면서 다음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 글쓴이 박효미 선생님이 쓰신 다른 작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일기 도서관》, 《노란 상자》, 《말풍선 거울》, 《길고양이 방석》, 《학교 가는 길을 개척할 거야》, 《오메 돈 별자고?》, 《왕자 융과 사라진 성》,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블랙아웃》, 《고맙습니다 별》 등

💡 글쓴이 박효미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 (예)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품게 된 외로움이라는 조약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 이 책에는 글쓴이 박효미 선생님의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세요.

⇒ 하루를 보내는 길목, 모퉁이, 어두운 밤길에서 조약돌은 가끔 시리도록 차가워질지도 모른다. ~ 하여 그 조약돌을 지니고 있어도 괜찮다고 종종 마주 달래면 되는 일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



책 읽을 때 생각할 점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앞에서 정한 책을 즐기며 봅시다.

책을 읽을 때 생각할 점	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이야기나 시의 장면을 머릿속에 자세하게 그리며 읽어요.
	상상하며 읽기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상상하며 읽어요.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재미있는 표현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를 생각하며 읽어요.
	다른 작품과 연결 지으며 읽기	다른 작품을 떠올려 견주어 보며 읽어요.
	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며 읽기	작품에 나온 세계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으며 읽어요.

『7월 32일의 아이』를 즐기며 읽기-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TIP 장면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더 즐겁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장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기가 어려울 때 참고하기

💡 그림을 살펴보면 장면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 42쪽. 벼락 맞은 느티나무 죽은 가지 아래에 몽이의 머리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고
몽이 아버지가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린 모습.

💡 인물이나 장소를 자세히 나타낸 부분을 보면 장면을 떠올리기가 쉽다.

(예) 76쪽 7~15행. 명주 엄마 이영자 씨는 큰 슈퍼에서 돈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다. ~ 이를 다 드러내고 웃던 입은 앙다물었고, 눈빛은 차가워졌다.

💡 장면에 나온 낱말들이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지 생각해 본다.

(예) 48쪽 7~9행. 천둥이 아버지의 말을 잘랐다. 더불어 아버지의 몽둥이를 함께 데려왔다. 천둥이 울고 날뛰었다. 세상이 이보다 더 어두워질 수는 없었다.

💡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본다.

『7월 32일의 아이』를 즐기며 읽기-상상하며 읽기

TIP 상상하며 읽기는 책 내용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짐작해 보거나 책에 제시된 상황을 바꾸어 보는 읽기 방식입니다. 상상하며 읽기를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 몽이가 진호를 실컷 패 준 것처럼 아버지를 실컷 패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몽이 아빠가 등등 뜯 몽이 머리를 본 후로 술을 끊고 몽이를 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명주가 스스로 날개옷을 없애 버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날개옷을 들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7월 32일의 아이』를 즐기며 읽기-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읽은 날짜	읽은 쪽	인상 깊은 부분
○월 ○일	10쪽~53쪽 (7월 32일의 아이)	팔도 다리도 없는 인간이 떠 있다니, 진호는 눈을 크게 떴다가 짹 감고 머리를 흔들었다. 지켜보던 몽이 몸통이 참을 수 없다는 듯 둥둥 다가와 진호 대가리를 쳐 버렸다. 진호는 마침내 기절 직전에 이르렀다. 다리 없는 몸통이 둥둥 떠다니다 사람을 마구 찼다면 누가 믿거나 한단 말인가. 그야말로 몽이는 된통 두들겨 찼다. 그래봤자 그동안 당한 것에 비하면 손톱의 때 수준이었다. 분풀이가 끝나자 몽이의 몸통은 둥둥 떠서 피시방을 나왔다. (38쪽)
○월 ○일	56쪽~107쪽 (선녀의 날개옷)	“좋아요, 해요.” 명주는 고민도 하지 않고 흔쾌히 말해 버렸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았고, 여태와는 다르게 살고 싶었다. 어른들이 활짝 웃었다. 명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엄마는…… 빠져요. 내 일에 끼여들지 마요.” “애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내가 도와야지.” “엄마.” 명주가 소리쳤다. “원래대로 사시면 돼요.”

『7월 32일의 아이』를 즐기며 읽기-다른 작품과 연결 지으며 읽기

TIP 학생들이 각자 책을 읽으면서 특징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다른 작품을 떠올려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 (예) · 이 책의 특징적인 요소 : 친숙한 이야기에서 소재를 가져와 새로운 이야기로 썼다.
 ·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다른 작품 :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
 · 차이점 비교하기 :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는 명작동화나 전래동화의 등장인물과

기본 설정을 유지하면서 주제와 줄거리를 바꾼 데 반해, 〈7월 32일의 아이〉는 옛이야기에서 핵심 소재만 가져왔을 뿐 등장인물과 기본 설정, 주제와 줄거리가 모두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7월 32일의 아이』를 즐기며 읽기_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며 읽기

TIP

학생들이 각자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상황 또는 심정에 공감이 가는 장면을 선택한 후, 비슷한 경험을 말해보도록 합니다.

(예) ·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장면 선택하기 ⇨ 떨거지들을 모두 내보내고, 나영이가 은밀하게 말했다. 뭐든 자기 손아귀 안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다. 여왕벌처럼 아이들을 부렸다. (69쪽)

· 비슷한 경험 말하기 ⇨ 작년에 우리 반에도 나영이처럼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친구들을 부리는 아이가 있었다.



📖 생각 나누기-독서 토의하기

1) 책을 읽고 친구들과 생각 나누기

💡 책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누가 나오나요?

·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인물이 사건을 겪은 뒤에 사건을 겪기 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 책 내용에서 단서를 찾아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인물은 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했을까요?

(예) · 인물은 어떤 성격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나 장면은 무엇인가요?

·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삶과 관련짓는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인물이 느낀 것과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 내가 그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 주인공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2) 앞에서 나온 질문 외에 여러 가지 질문 만들기

3) 주제를 정해 독서 토의하기

① 독서 토의 주제 이야기하기

(예) · 등장인물에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부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

· 책에 나온 세계와 현실 세계를 견주어 보는 내용으로 토의하기

· 두 책의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을 이야기 나누기

· 책에서 다루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토의하기

② 토의 주제 정하기

③ 토의 주제를 생각하여 자신의 의견 정하기

TIP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④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기

⑤ 토의하고 나서 작품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하기



『7월 32일의 아이』를 읽고 생각 나누기_여러 가지 질문 만들기

TIP

이야기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이나 사건의 이해를 묻는 질문, 낱말의 뜻을 묻는 질문 등이 있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질문에는 주인공의 심리를 묻는 질문, 자은이의 의도를 묻는 질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 등이 있습니다.

책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예) 몽이는 왜 진호를 마구 패주었을까?
책 내용에서 단서를 찾아 답할 수 있는 질문	(예) 마지막에 몽이는 왜 사라지기로 선택했을까?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묻는 질문	(예) 명주가 하늘을 날게 되면서 명주를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자신의 삶과 관련짓는 질문	(예) 평소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7월 32일의 아이』를 읽고 주제를 정해 독서 토의하기

① 독서 토의 주제 이야기하기

(예) '7월 32일의 아이'에서 도깨비가 몽이의 행동을 방관한 것은 잘못이 아닐까?

(예) '선녀의 날개옷'에서 날개옷을 벗은 이후로 명주의 삶은 날개옷을 얻기 전과 달라졌을까?

② 토의 주제 정하기

토의 주제	(예) '선녀의 날개옷'에서 날개옷을 벗은 이후로 명주의 삶은 날개옷을 얻기 전과 달라질까?
-------	---

③ 토의 주제를 생각하여 자신의 의견 정하기

내 의견	(예) 나중에는 결국 예전대로 돌아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	(예) 명주가 하고 싶은 말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날개옷 덕분이었는데, 이제 날개옷이 없으면 예전처럼 할 말도 제대로 못 할 것이다. 그러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명주를 다시 답답하게 느끼고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의견	(예) 이제 날개옷이 없어도 그전과는 다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	(예) 명주가 날개옷을 얻고 나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느끼고 생각한 바가 있으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 명주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어휘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은 '7월 32일의 아이'와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가) · 마루로 나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 건 제대로 주제넘은 것이었다.

- 밥 한 통과 바꾼 정보는 기껏 감투가 너무 삭아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사실이었다.
- 첫째 날은 남은 밥 한쪽이 사라졌는데, 몽이가 채근하자 그다음 날은 아주 나타나지도 않았다.
- 흰머리 성성한 아저씨 한 분이 대뜸 청진기를 갖고 명주에게 다가왔다.

(나) · 몽이가 고약한 아버지를 두었고, 아이 자신도 남다르게 ㉠몽니 긋어 몽이로 불렸다.

- 떡다 남은 라면 그릇이며, 벗어 던진 옷가지, 비닐봉지들을 ㉡게 눈 감추듯 치웠다.
- 이미 ㉢엮일러진 물이었고, 그 물을 닦는 건 명주 몫일 터였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의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주제넘다 : (③), 삭다 : (④), 채근하다 : (②), 성성하다 : (①)

① 머리털 따위가 희끗희끗하게 세다. ⇨ 성성하다

(예문) 저 노인은 백발이 성성해도 기운은 장사이다.

② 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하다. ⇨ 채근하다

(예문) 그는 인부들에게 그 일을 꼼꼼하게 할 것을 채근하고 돌아갔다.

③ 말이나 행동이 건방져 분수에 지나친 데가 있다. ⇨ 주제넘다

(예문) 네가 주제넘게 그 자리를 넘보는 것이냐?

④ 물건이 오래되어 본바탕이 변하여 썩은 것처럼 되다. ⇨ 삭다

(예문) 밧줄이 삭아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2) (나)의 밑줄 친 표현 ㉠~㉣의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 : (㉠), ㉡ : (㉡), ㉢ : (㉢)

㉡ 음식을 빨리 먹어 치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게 눈 감추듯

㉠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 심하다. ⇨ 몽니 굶다

몽니가 굶다=몽니가 심하다 (예문) 저 사람은 몽니가 굶어서 상대하기 힘들어.

㉢ 한번 저지른 일을 다시 고치거나 중지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엽질러진 물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7월 32일의 아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사라지고 싶다고 했잖아.” 꼬마가 말했다. 몽이가 대답할 새도 없이 꼬마가 검부러기를 몽이 머리에 다시 씌웠고, 바로 손이 사라졌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은 틀림없이 있었다. 꼬마가 몽이 머리에서 그 검부러기 같은 모자를 벗기자 다시 손이 보였다.

“혹시, 도깨비감투야?” 도깨비감투는 이야기 속이나 나오는 신기한 물건이다. 녀석이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느티나무 속에서 500년을 살았다고 했다. 감투가 500년이나 되니 낡고 해져 버려 이 꼴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 책의 23쪽입니다.

(나) 만약 머리와 몸통만 남는다면, 그런 아이가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아마 서울 시내가 발각 뒤 집힐 것이다. 깡다구 진호도, 술 취한 아버지도 단박에 기절할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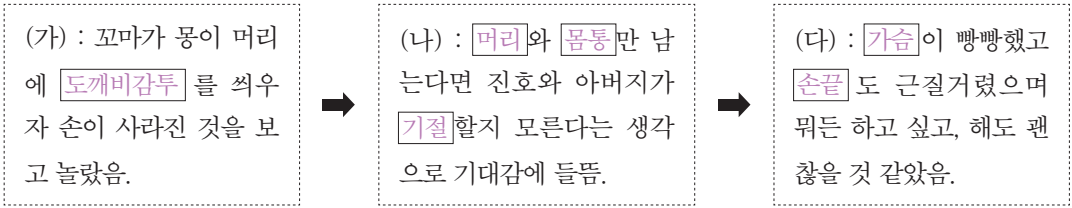
“야, 허리 아래로 안 보이게 해 줘.”

⇒ 책의 33쪽입니다.

(다) 참으로 기묘한 건 그다음이었다. 진호를 실컷 패 주고 나니, 가슴에 뽕뽕한 바람이 든 것 같았다. 손끝도 근질거렸다. 뭐든 하고 싶었다. 부스럼이 될지언정 긁어 보는 것도, 주먹으로 때려 부셔 보는 것도 다 괜찮을 것 같았다. 그 느낌을 간신히 참고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온 게 오히려 놀라울 지경이었다.

⇒ 책의 38쪽입니다.

1) (가)~(다)에 나타난 ‘몽이’의 감정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2) (가)에서 ‘꼬마’가 도깨비감투를 ‘몽이’에게 씌우자 손만 사라진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예시답안) 꼬마가 느티나무 속에서 500년을 살았기에 가지고 있던 도깨비감투가 500년이나 되니 낡고 해져 버려서

(해설) 도깨비감투가 낡고 해진 만큼 신통함이 줄어들었다.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7월 32일의 아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버지가 날마다 두드려 패는 몽이예요.”

머리만 둥둥 뜬 몽이가 이제 말까지 했다. 주저앉아 있던 아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진짜로 별받는 날이 오는구면, 아이고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몽이 아버지는 침을 질질 흘렸다.

“꿈이면 좋겠지만, 꿈이 아니예요. 아버지가 날 패는 것도 꿈이 아니고요.”

몽이 목소리에 아버지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는데, 몽이 머리가 춤추듯 아버지 쪽으로 다가왔다. 그제야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몽이 아버지는 기절하고 말았다.

⇒ 책의 43쪽입니다.

(나) 그날 몽이는 창신동에서 사라졌다. 몽이 아버지도, 엄마도, 구멍가게 김 씨도 더는 몽이를 볼 수 없었다.

이따금 온 세상의 구름이 서울 하늘 아래 모이는 날이면 창신동 벼락 맞은 느티나무 아래에 한 소년이 앉아 있곤 했다.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았지만, 번개가 세상을 밝히는 찰나, 그 짧은 순간에 틀림없이 소년의 그림자가 보였다. 소년의 그림자가 어쩌나 슬프게 느껴지는지, 그 순간을 얼핏이라도 본 사람이면 꼭 느티나무를 다시 찾아와 소년의 흔적을 찾곤 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림자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

⇒ 책의 52쪽입니다.

1) (가)에서 ‘몽이’가 도깨비감투를 쓰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예시답안) 몽이를 날마다 두드려 패는 아버지를 놀라게 해 주려고

2) (나)에서 ‘몽이’는 도깨비감투를 뒤집어쓰고 창신동에서 사라져서 누구도 더는 몽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1) ‘몽이’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 (예시답안) 아버지는 자신을 날마다 때리고 엄마는 자신을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몽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2) ‘몽이’의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 (예시답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환경에서 고통 받고 좌절하는 몽이의 입장에 공감이 간다. / 단 한 사람이라도 몽이를 도와줄 이가 있었다면 결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3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날개옷을 벗자 명주는 덜컥 겁이 났다. 하루 종일 저지른 일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고, 그 물을 닦는 건 명주 몫일 터였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자 명주는 다시 날개옷을 입었다. 역시나 그저 날 줄 아는 옷이 아니었다. 입자마자 배가 똥똥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명주는 날개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

⇒ 책의 79쪽입니다.

(나) “날개옷이 누나한테 붙었어.”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이대로 두면 날개옷은 완전히 살을 파고들어 명주와 한 몸이 될 것 같았다. 한 몸이 되면 명주는 맘껏 날며 멋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고 멋대로 살면 될 것이다. 명주를 대놓고 무시하는 아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주 못 벗을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명주는 어쩌면 온전한 사람으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별안간 두려워졌다. 문득 이쯤에서 멈추고 싶었다.

명주는 진수를 보았다. 꼬맹이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누나 좀 도와줄래? 여기 거드랑이 있지, 날개옷 잡아당겨, 아주 세게. 딱 한 번에.”

⇒ 책의 101쪽입니다.

1) (가)에 나타난 '명주'의 상태를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날개을 벗음]

하루 종일 저지른 일이 생생하게 그려져서 덜컥 겁이 났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음.



[날개을 입음]

곧바로 배가 똥똥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음.

2) (나)에서 '명주'가 날개옷을 벗고 이쯤에서 멈추고 싶어 한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예시답안) 이대로 두면 날개옷이 명주와 한 몸이 되어 날개옷을 아주 못 벗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 어쩌면 온전한 사람으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4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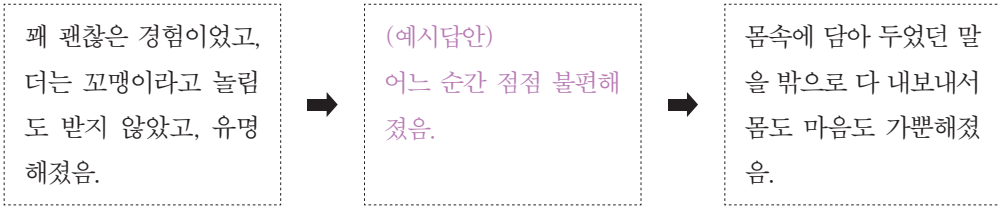
(가) 명주는 그제야 여태 꼭 쥐고 있는 깃털을 보았다. 아까 날개옷에서 뺐던 깃털이었다. 이 깃털을 빼자 날개옷이 사라졌다. 명주는 꼼꼼하게 깃털을 살폈다. 반질반질한 깃털에 그려진 그림은 썩 멋졌다. 하늘을 나는 사람, 요 며칠 명주의 모습이었다. 꽤 괜찮은 경험이었다. 더는 꼬맹이라고 놀림도 받지 않았다. 유명해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불편해졌다. 어쨌거나 몸속에 담아 두었던 말을 밖으로 다 내보냈다. 후련하게 끝이 났다. 몸도 마음도 가뻗해졌다. 진수가 깃털을 갖겠다고 떼를 썼다.

⇒ 책의 79쪽입니다.

(나) 명주는 그 깃털을 뒤주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자물통을 꼭 잠그고 열쇠는 따로 마루 밑에 두었다.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이 풍진세상을 또 한탄하며 노래를 했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명주는 받지 않았다. 고니들이 떼 지어 산 너머로 날아갔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날갯짓이었다. 명주는 고니들이 사라진 쪽을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 책의 79쪽입니다.

- 1) (가)에서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명주'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 2) (나)에서 '명주'는 깃털을 뒤주에 다시 넣고, 자물통을 꼭 잠그고 열쇠는 따로 마루 밑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명주'의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 (예시답안) 다시는 날개옷을 입지 않기로 한 명주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날개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 본 것은 꽤 괜찮은 경험이었지만, 계속해서 날개옷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 회피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명주 스스로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를 응원한다.



📖 독서 활동 돌아보기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매우 잘함, 잘함, 보통임의 3단계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 책 표지, 차례, 그림을 살펴보고 읽을 책을 정했나요?
- 책을 읽을 때 생각한 점을 떠올리며 즐겁게 책을 읽었나요?
-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책에 대한 생각을 활발하게 나누었나요?
- 문학 작품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나요?

📖 더 찾아 읽기

💡 자신이 읽은 책과 관련이 있는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봐요.

(예) 옛이야기에서 소재를 차용해서 새롭게 창작한 동화를 더 읽어보고 싶어.

(예) 소외되고 외로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동화를 더 찾아서 읽고 싶어.

💡 『7월 32일의 아이』와 관련 있는 다른 책 더 찾아 읽기

· 읽고 싶은 책 목록

순서	책 제목(출판사)	글쓴이	이 책을 고른 까닭
1	〈말더듬이와 마법〉 (바람의아이들)	한박순우	세상의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의 터널을 빠져 나와 성장하는 이야기를 읽고 싶어서이다.
2	〈걸어서 할머니 집〉 (웅진주니어)	강경숙	웅진책마을 시리즈의 다른 동화를 더 읽어보고 싶어서이다.
3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 (뜨인돌어린이)	노경실 외	잘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동화를 더 읽어보고 싶어서이다.
4	〈나는 여름방학 중독이에요〉 (미래엔아이세움)	박효미	박효미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더 읽어보고 싶어서이다.

📖 독서 습관 기르기

💡 이번 학기 동안에 자신이 읽은 문학 작품을 다른 작품과 연결해 보기

책 제목(출판사)	책을 읽고 떠오르는 다른 작품	그 작품이 떠오른 까닭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노란돼지)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 (뜨인돌어린이)	탈북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마간당 까또또〉 (단비어린이)	〈까매서 안 더워?〉 (파란자전거)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글 한글



어휘력 기르기

이름 :

💡 다음은 '7월 32일의 아이'와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 마루로 나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 건 제대로 주제넘은 것이었다.
- 밥 한 통과 바꾼 정보는 기껏 감투가 너무 삭아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사실이었다.
 - 첫째 날은 남은 발 한쪽이 사라졌는데, 뭉이가 채근하자 그다음 날은 아주 나타나지도 않았다.
 - 흰머리 성성한 아저씨 한 분이 대뜸 청진기를 갖고 명주에게 다가왔다.
- (나) · 뭉이가 고약한 아버지를 두었고, 아이 자신도 남다르게 ㉠뭉니 긋어 뭉이로 불렀다.
-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며, 벗어 던진 옷가지, 비닐봉지들을 ㉡개 눈 감추듯 치웠다.
 - 이미 ㉢엮일려진 물이었고, 그 물을 닦는 건 명주 몫일 터였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의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주제넘다 : (), 삭다 : (), 채근하다 : (), 성성하다 : ()

- ① 머리털 따위가 희끗희끗하게 세다.
- ② 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하다.
- ③ 말이나 행동이 건방져 분수에 지나친 데가 있다.
- ④ 물건이 오래되어 본바탕이 변하여 썩은 것처럼 되다.

2) (나)의 밑줄 친 표현 ㉠~㉢의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 : (), ㉡ : (), ㉢ : ()

- ㉣ 음식을 빨리 먹어 치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 심하다.
- ㉥ 한번 저지른 일을 다시 고치거나 중지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1)

이름 :

💡 다음 ‘7월 32일의 아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사라지고 싶다고 했잖아.” 꼬마가 말했다. 몽이가 대답할 새도 없이 꼬마가 검부러기를 몽이 머리에 다시 씌웠고, 바로 손이 사라졌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은 틀림없이 있었다. 꼬마가 몽이 머리에서 그 검부러기 같은 모자를 벗기자 다시 손이 보였다.

“혹시, 도깨비감투야?” 도깨비감투는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신통한 물건이다. 녀석이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느티나무 속에서 500년을 살았다고 했다. 감투가 500년이나 되니 낡고 해져 버려 이 꼴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나) 만약 머리와 몸통만 남는다면, 그런 아이가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아마 서울 시내가 발각 뒤집힐 것이다. 깡다구 진호도, 술 취한 아버지도 단박에 기절할지 모른다.

“야, 허리 아래로 안 보이게 해 줘.”

(다) 참으로 기묘한 건 그다음이었다. 진호를 실컷 패 주고 나니, 가슴에 뽕뽕한 바람이 든 것 같았다. 손끝도 근질거렸다. 뭐든 하고 싶었다. 부스럼이 될지언정 굶어 보는 것도, 주먹으로 때려 부셔 보는 것도 다 괜찮을 것 같았다. 그 느낌을 간신히 참고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온 게 오히려 놀라울 지경이었다.

1) (가)~(다)에 나타난 ‘몽이’의 감정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가) : 꼬마가 몽이 머리에
[] [] [] [] []
를 씌우
자 손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음.



(나) : [] []와 [] []만
남는다면 진호와 아버지
가 [] []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대감에 들뜬.



(다) : [] []이 뽕뽕했고
[] []도 근질거렸으며
뭐든 하고 싶고, 해도 괜
찮을 것 같았음.

2) (가)에서 ‘꼬마’가 도깨비감투를 ‘몽이’에게 씌우자 손만 사라진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2)

이름 :

💡 다음 '7월 32일의 아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버지가 날마다 두드려 패는 몽이에요.”

머리만 둥둥 뜬 몽이가 이제 말까지 했다. 주저앉아 있던 아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진짜로 별받는 날이 오는구면, 아이고야.”

흔젓말로 중얼거리면서 몽이 아버지는 침을 질질 흘렸다.

“꿈이면 좋겠지만,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날 패는 것도 꿈이 아니고요.”

몽이 목소리에 아버지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는데, 몽이 머리가 춤추듯 아버지 쪽으로 다가왔다. 그제야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몽이 아버지는 기절하고 말았다.

(나) 그날 몽이는 창신동에서 사라졌다. 몽이 아버지도, 엄마도, 구멍가게 김 씨도 더는 몽이를 볼 수 없었다.

이따금 온 세상의 구름이 서울 하늘 아래 모이는 날이면 창신동 벼락 맞은 느티나무 아래에 한 소년이 앉아 있곤 했다.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았지만, 번개가 세상을 밝히는 찰나, 그 짧은 순간에 틀림없이 소년의 그림자가 보였다. 소년의 그림자가 어쩌나 슬프게 느껴지는지, 그 순간을 얼핏이라도 본 사람이면 꼭 느티나무를 다시 찾아와 소년의 흔적을 찾곤 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림자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

1) (가)에서 ‘몽이’가 도깨비감투를 쓰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2) (나)에서 ‘몽이’는 도깨비감투를 뒤집어쓰고 창신동에서 사라져서 누구도 더는 몽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1) ‘몽이’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

(2) ‘몽이’의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3)

이름 :

💡 다음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날개옷을 벗자 명주는 덜컥 겁이 났다. 하루 종일 저지른 일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고, 그 물을 닦는 건 명주 몫일 터였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자 명주는 다시 날개옷을 입었다. 역시나 그저 날 줄 아는 옷이 아니었다. 입자마자 배가 똥똥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명주는 날개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

(나) “날개옷이 누나한테 붙었어.”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이대로 두면 날개옷은 완전히 살을 파고들여 명주와 한 몸이 될 것 같았다. 한 몸이 되면 명주는 맘껏 날며 멋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고 멋대로 살면 될 것이다. 명주를 대놓고 무시하는 아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주 못 벗을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명주는 어쩌면 온전한 사람으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불안간 두려워졌다. 문득 이쯤에서 멈추고 싶었다.

명주는 진수를 보았다. 꼬맹이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누나 좀 도와줄래? 여기 겨드랑이 있지, 날개옷 잡아당겨, 아주 세게. 딱 한 번에.”

1) (가)에 나타난 ‘명주’의 상태를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을 벗음]

하루 종일 저지른 일이 생생하게 그려져서 덜컥 이 났고, 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음.



[을 입음]

곧바로 배가 똥똥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 생겼고, 은 눈 녹듯 사라졌음.

2) (나)에서 ‘명주’가 날개옷을 벗고 이쯤에서 멈추고 싶어 한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4)

이름 :

💡 다음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명주는 그제야 여태 꼭 쥐고 있는 깃털을 보았다. 아까 날개옷에서 뺀 깃털이었다. 이 깃털을 빼자 날개옷이 사라졌다. 명주는 꼼꼼하게 깃털을 살폈다. 반질반질한 깃털에 그려진 그림은 썩 멎었다. 하늘을 나는 사람, 요 며칠 명주의 모습이였다. 꽤 괜찮은 경험이었다. 더는 꼬맹이라고 놀림도 받지 않았다. 유명해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불편해졌다. 어쨌거나 몸속에 담아 두었던 말을 밖으로 다 내보냈다. 후련하게 끝이 났다. 몸도 마음도 가뿐해졌다. 진수가 깃털을 갖겠다고 떼를 썼다.

(나) 명주는 그 깃털을 뒤주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자물통을 꼭 잠그고 열쇠는 따로 마루 밑에 두었다.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이 풍진세상을 또 한탄하며 노래를 했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명주는 받지 않았다. 고니들이 떼 지어 산 너머로 날아갔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날갯짓이었다. 명주는 고니들이 사라진 쪽을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1) (가)에서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명주’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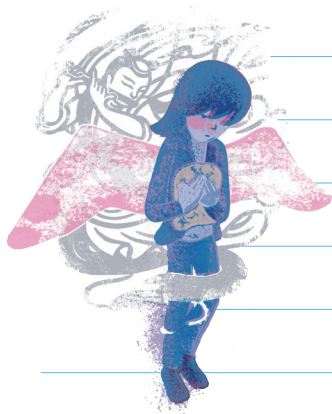
꽤 괜찮은 경험이었고, 더는 꼬맹이라고 놀림도 받지 않았고, 유명해졌음.



몸속에 담아 두었던 말을 밖으로 다 내보내서 몸도 마음도 가뿐해졌음.

2) (나)에서 ‘명주’는 깃털을 뒤주에 다시 넣고, 자물통을 꼭 잠그고 열쇠는 따로 마루 밑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명주’의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





웅진주니어

값 9,500원



9 788901 219585
ISBN 978-89-01-21958-5
ISBN 978-89-01-03863-6(세트)



KC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함을 증명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